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25 년 1 월 20 일 03 시 40 분(현지시각)에,

필리핀 마닐라, 한나의 집 공동체에서

우리의 루치타 사리굼바(Sr LUCITA SALIGUMBA)수녀님이

73 세, 44 년간의 수도생활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교회가 독서기도에서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을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 기도했듯이, 아버지께서는 충실하고 열성적인 빠스또렐라로 살면서, 특히 투병 중에 굳건한 믿음과 선하신 목자에게 맡기는 것을 증거한 루치타 수녀를 당신께 부르셨습니다.

루시타는 1951 년 12 월 3 일 필리핀 타그빌라란-보홀시에서 태어나 같은 해 12 월 25 일 성 요셉의 이름을 딴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78 년 2 월 10 일 이무스 공동체로 입회하여 1978 년 7 월 1 일 케손 시티의 수련소에 입수련했습니다. 1980 년 10 월 7 일 케손 시티에서 첫 서원을 하고 1981 년 파라냐케 공동체로 파견되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창의성을 발휘했고, 이어서 이무스 학교에서 종교 교사로서 사목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1986 년 10 월 6 일 케손 시티에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종신서원 후 이무스 학교로 돌아와 1988 년까지 종교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루시타 수녀는 공동체 생활과 사도직 환경 모두에 잘 적응하는 유쾌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사도직에 창의적인 그녀는 사도직에서 교회의 친교를 증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사도직에 필요한 필요와 자원을 해결하는 데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선택을 통해 영적 삶을 수양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소외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친구로서, 자매로서 빠스또렐라의 연민의 마음을 실현했습니다.

산 페르난도 - 라 유니온은 빈곤의 현실에 봉사하는 것 외에도 교구 전체에서 의료 및 치과 서비스를 조직하여 다양한 종파의 의료진을 한데 모으는 친교의 도구가 되고있습니다. 그는 공동체와 사도직 모두에서 친절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 사도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신을 향한 많은 보살핌에 대해 항상 감사했습니다.

루시타 수녀는 외곽 지역의 다양한 사도직을 포용하는 강렬한 사목 사도직을 실천하였으며, 관구의 통솔에서도 봉사하였습니다. 1988 년 톤도에서, 1991 년 산 페르난도 - 교구 카리타스의 유니온에서, 1994 년 퀘존시티에서 교구 교리교육 조정자로, 1998 년 알칸타라 - 롬블론에서, 1999 년 본당 사목, 2005 년 퀘존시티에서 해양사목, 2008 년 산 페르난도 - 교구 카리타스의 유니온, 2014 년 알라미노스에서 기초 교회 공동체, 2015 년 이무스에서 교구 청소년 사목, 2016 년 가르멜 산 - 퀘존시티 그리고 2019 년에는 반나 공동체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루시타 수녀는 투병 중에도 열린 마음으로 항암 치료와 병세에 필요한 다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녀는 자신의 영적 돌봄을 강화했고, 선한 목자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한 선물로 화해의 성사와 병자성사를 받았습니다. 수녀들은 수녀가 고통의 사도직을 온화하게 받아들였다고 증언합니다. 수녀의 마지막 날들에 수녀의 표정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녀는 항상 사랑했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루시타 수녀를 보살피고 병의 모든 단계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하며 평온과 안식을 위해 필요한 모든 보살핌을 제공한 관구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루시타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기면서, 우리의 이 수녀님이 전쟁과 다양한 형태의 가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총 장

2025 년 1 월 20 일, 로마

성 파비아노 순교자와 성 세바스티아노 교황 순교자